

# 뚜쥬루 제과



은은한 간접조명이 돋보이는  
깨끗한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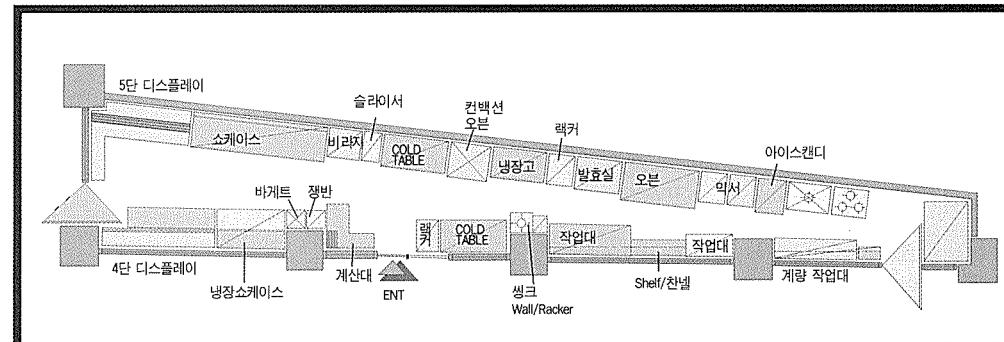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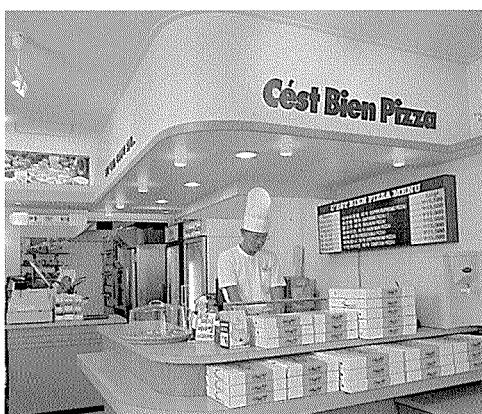
- 위치 : 성동구 응봉동 98 현대종합상가 102호
- 면적 : 매장 13평, 공장 12평
- 인원 : 6명, 매장실연 1인
- 마감재: 바닥/실버스텝, 노브룡, 벽, 천정/락카도장, 사인/파니플렉스, 유리면위 피자네온, 가구/수입원목 의자, 테이블
- 마감재: 바닥/실버스텝, 노브룡, 벽, 천정/락카도장, 사인/파니플렉스, 유리면위 피자네온, 가구/수입원목 의자, 테이블

◀ 좌석공간에서 바리본 매장전경. 아이보리색을 주조로 한 매장은 전체적으로 밝고 깨끗한 분위기를 주고 있다. 벽면의 윗부분에 은은한 간접조명은 매장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고 소품과 사인을 돋보이게 하고 있다. 천정의 독특한 구조물은 자칫 단조로워지기 쉬운 매장에 포인트 역할을 하고 있다.

▶ 입구 오른쪽에 위치한 객식공간, 피자코너와 나란히 배치한 이곳은 운거나 느끼는 곳으로 누구라도 앉아보고 싶어진다. 세련된 디자인을 한 가구와 벽에 장식한 소품이 비록 작은 공간이지만 고급스런 분위기를 주기 때문이다. 피자주문을 한 고객을 위해 조그만 대기석도 잊지 않고 있다.

▼▼ 직석공간에서 바라본 피자코너. 피자코너는 작은 쿠너이지만 큰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곳이다. 소홀히 다를 수 없는 곳임에도 경영주의 연구와 노력이 부족한 곳이 되기 쉽다. 끝으로 피자는 빵과 같은 수준의 맛을 유지하면서 아르바이트로 신속한 배달을 통해 고객의 흥을 부울하고 있다.

◀ ◀ 뚜쥬루의 외장전경, 높은 간판이 눈에 잘 띠는 이곳의 외장은 다른  
크블루와 독특한 로고가 인상적이다. 다크블루와도 잘 어울리는 노  
란색 어닝은 외장의 분위기에 활기를 준다. 또한 두가지 색의 조화  
는 피자 이미지를 주고 있어 피자 홍보 역할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옹봉동 삼거리 현대 아파트 상가 1층에 위치한 뚜쥬루 제과(대표 이용구)는 대로변에 위치한 아파트단지 입구에 자리하고 있다. 주변 아파트 단지 세력과 건너편 주택단지의 구매세력을 가진 뚜쥬루는 7년전에 입점하여 인지도가 높은 곳이다.

주변에 별다른 상권이 형성되어 있지 않고 아파트 상가가 메인상권을 유지하고 있는 이곳은 양분되는 아파트단지 세력과 주택단지의 구매력을 흡입할 수 있는 조건을 지닌 곳이다. 뚜렷한 경쟁점이 없는 이곳은 무엇보다 제품의 질을 우선으로 하고 친절한 서비스와 깨끗한 매장 이미지로 고객을 유도하고 있다.

이곳의 인테리어는 아이보리색을 주조색으로하여 전체적으로 밝고 깨끗한 이미지를 주고 있다. 외장의 높은 간판은 다크블루를 바탕으로 독특한 로고를 형성하고 노란색 어닝을 강조하여 외부의 활발한 이미지를 전하고 있으며 피자 패드의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현하고 있다.

입구를 들어서면 왼쪽으로 빵디스플레이대를 배치한 매장은 가운데 평대 쇼케이스를 두어 전략상품을 진열했다. 안쪽 깊숙히 매장과 공장 사이에 카운터를 배치함으로써 중앙디스플레이대를 중심으로 고객동선을 유지하고 있을뿐 아니라 제품 포장에서부터 고객관리를 겸하는 기능을 부여하고 있다.

천정에는 뚜쥬루의 상징 구조물이 단순하고 깨끗한 매장 이미지에 포인트를 주고 있으며 간접조명으로 은은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또 은은한 조명으로 인해 소품과 매장의 사인이 돋보이게 한다.

이곳의 매력 포인트는 피자코너를 적극적으로 실현하고 있는 점이다. 주거지 세력을 배경으로 맛과 신속한 배달에 대한 경영주의 적극적인 투자가 눈에 띠기 때문이다. 입구 오른쪽에 별도의 좌석공간을 마련하고 아르바이트를 적극 활용하여 신속한 배달로 고객의 호응에 부응하고 있기 때문이다.

매장 오른쪽에 배치한 피자코너와 나란히 있는 좌석공간은 작은 공간이지만 인테리어 각각이 엿보이는 고급스런 가구로 고객을 유도하고 있다.

뚜쥬루의 상호가 주는 의미와 같이 항상 맛과 질을 우선으로 하는 뚜쥬루는 친절한 서비스로 더욱 고객에게 가깝게 다가가고 있어 기대되는 제 과점이다.

●방나오는 시 간●	
09시	한국교원대학교
10시	한국교민대학원
11시	한국교민대학원
12시	한국교민대학원
13시	한국교민대학원
14시	한국교민대학원
15시	한국교민대학원
16시	한국교민대학원
10월	

▲ 입구에 걸려있는 빵뉴스. 시간대별로 빵이 나오는 시간을 고객에게 알림으로써 고객에게 정보와 친근감을 줄뿐 아니라 시리도를 준다.